

## DDA, 2005년 9월 농업협상 동향

한 달여의 휴가 기간이 지나고 DDA 협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의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섰으나 모델리티 협상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논의해야 할 쟁점이 너무 많아 협상 성공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8월 말로 임기가 끝난 수파차이 전 사무총장을 대신해 파스칼 라미가 새로운 WTO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미국과 EU가 협상 진전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어 협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1.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취임

WTO 사무총장으로 새로 취임한 파스칼 라미는 전 EU 무역집행위원으로서 자유무역의 옹호자이며 매우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협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라미 신임총장이 가진 협상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DDA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집행권을 가지지 않은 사무총장은 중재자로서의 역할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국들의 협상 타결 의지가 없는 한 논의 진전은 어렵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미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농업, NAMA, 서비스 등 각 협상 특별회의 의장들을 소집하여 무역집행위원회 회의를 가지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라미 총장은 이 회의에서 2006년 DDA 종결을 위해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세부원칙 전체의 2/3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임 농업협상 의장인 팰코너의 주도 아래 각국이 타협 의지를 보여주기를 요청하였다.

## 2. DDA 9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모델리티 초안 도출이 실패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열린 특별회의가 열렸지만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협상 그룹들이 상대방의 의중을 탐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공식협상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팀 그로서 의장을 대신하여 새로 특별회의 의장직을 맡은 크로포드 팰코너 대사는 기존의 3단계 협상 방식<sup>1)</sup>보다는 협상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국이 협상의 목표 수준과 구체적인 수치들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홍콩 각료회의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과 EU의 의견 조율 없이는 성공적인 각료회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었다. 브라질과 파키스탄은 G20을 대표하여 농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농업협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1) 약 25개의 핵심 이해당사국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의(Room F Process), 100여개 국가가 참석하는 기술적 협의(Room D Process),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회의(CR Process)를 말함.

G20은 특별회의에서 지난 주 발표한 각료 선언문에 기초하여 G20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브라질과 파키스탄은 AMS의 감축 공식이 무역왜곡보조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며 블루박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는 5년 내에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접근분야에 대해서는 구간별 감축공식으로서 선형감축방식이 채택되어야 하며 고관세 품목을 없애기 위해 관세상한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G10은 농업협상의 결과는 여타 협상 즉 NAMA, 서비스 협상 등을 포함한 전체 협상의 틀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세 상한의 설정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각국의 관세구조의 차이를 감안하여 구간별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G20이 내세우고 있는 선형감축방식이 적용된다면 구간별로 신축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산물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 그룹은 농업협상에서 주요 국가들의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상에서 시장접근분야의 핵심 쟁점인 민감품목과 관세감축방식과 국내보조분야의 블루박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미국 · EU 각료급 회동

EU의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포트만 무역대표와 요한슨 농무장관을 만나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미국 방문 중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앞으로 DDA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은 선진 개도국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지난 글렌이글스에서 부시 대통령이 수출보조와 국내보조를 2010년까지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보조 감축은 지연되고 있는 DDA 협상 진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EU가 각료급 회동을 가지자 WTO 회원국들은 미국, EU간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DDA 협상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4. DDA 농업협상 향후 협상 일정

9월 특별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주요국간 집중적인 양자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모델리티 최종 합의안 도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정은 10월 특별회의가 있기 전 미국과 EU가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과 인도를 설득, 이후 주요국들과의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22일까지의 협상 동향을 보면 미국과 EU간 논의는 대부분의 농업협상의 핵심 쟁점들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보조분야에 있어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9월 농업위원회 이후 협상 일정

날짜	장소	회의
9/22	파리	미국·EU 각료회의
9/22~9/23	파리	Quad(미국, EU, 인도, 브라질) 각료회의
9/23	파리	FIPs(Quad+호주) 회의
9/26	파리 또는 제네바	FIPs Plus(FIPs+스위스, 일본, 중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고위급 회의
9/29~9/30	제네바	일본 주최 소규모 각료회의
10/9~10/10	쾨리히	미국 주최 소규모 각료회의
10/17~10/21	제네바	10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EU는 미국이 가격보전직불제(Counter Cyclical Payment, CCP)를 블루박스로 옮기기 위하여 새로운 블루박스에 규제를 더 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CCP를 감축대상보조에서 블루박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CCP가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기본골격에서는 CCP에 대한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응수하고 나섰다.

이처럼 블루박스를 둘러싸고 미국·EU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나 시장접근분야와 수출경쟁분야에 있어서는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포트먼 무역대표는 미국과 EU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EU의 만델슨 집행위원은 양자간 합의 도출이 매우 ‘해볼 만한 일’이며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보엘 EU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시작된 긍정적인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요한슨 농무장관은 회원국들의 합의 도출 결과가 미국의 농업법 개정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OECD의 미국 대표부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끝나자 각국의 장관들은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해 가고 있다며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그동안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었던 시장접근분야에 있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의 시장접근 개선을 이루는 것이 협상의 목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EU도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단 한 개의 관세라인도 예외가 없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소 신축적인 대우를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EU는 G20이 제안했던 선형감축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구간별로 신축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회원국들이 국내보조와 수출경쟁에서 양보를 할 경우 EU는 시장접근분야에서 양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과 EU는 G20의 제안을 기초로 최소한의 수정만을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관세 구간수나 시장접근분야의 기본적인 구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소영 lsyjr@krei.re.kr 02-3299-42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